

함즐함울

PRESBYTERIAN CHURCH OF THE LORD WEEKLY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롬 12:15)
2005년 교회표어 : 꿈을 꾸고 이상을 보라!

대한 예수교 장로회 주님의교회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50-4 (정신여중고 내) 02-416-5181 www.pcltv.org

기사제보 : 함즐함울 관련사항은 이창현 목사에게 문의바랍니다.

mobile: 011-466-4736 email: chhylee@korea.com

“예수님을 전염시키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춘계 전도부흥회 3일간 열려



해 줄 예정이다. 이번 전도부흥회를 통하여 예수님을 전염시키는 교회가 비전인 우리 주님의 교회에 특별히 올봄에 새롭게 시작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위

오는 3월 8일(화)부터 10일(목)까지 2005 전도부흥회가 오후 7시 30분에 대 예배실에서 3일간 저녁집회로 열린다. 현재 시카고 안디옥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채수권 목사가 강사로 “예수님을 전염시키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한다. 채목사는 월로우크릭 아시아지역 책임자로서, 다년간 월로우크릭협회 스태프로 섬기며, 생활전도세미나 강사로 사역해 왔다. 채목사는 생활전도 즉 성도들로 하여금 자신의 은사와 개성에 맞는 전도방법을 찾아주고 생활 속에서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안내

한 4부 전도예배를 앞두고 큰 도전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하여 성도들의 많은 참여와 은혜로운 집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길 부탁한다.

사역박람회, 진정한 꿈의 시작

2005 사역박람회가 ‘진정한 꿈의 시작’이란 제목으로 다음 주일 2월27일과 3월6일 2주일동안, 오전8:30부터 오후 1:30까지 1층 로비에서 자원봉사연결팀의 주관으로 열린다.

사역박람회는 교회 내외의 다양한 사역에 관심이 있으면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 그동안 사역에 참여하지 못하는 교우들과 그들을 필요로 하는 사역지를 연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새로운 사역의 아이디어가 있을 경우, 자원봉사연결팀에게 알려주면 새로운 사역으로 개발하게 된다. 참가방법은 기존 사역에 대한 안내를 위해 제작된 사역브로셔를 자세히 살펴보고 자신에게 맞는 사역지를 찾으면 된다. 하나이상 관심이 있는 곳을 확인하고, 사역박람회장에 마련된 부스에서 관련 부스를 찾아가 신청하면 된다. 관심 있는 부스마다 중복해서 신청하면 추후 연락을 받게 된다. 박람회의 부스는 분과협의회별로 한 칸씩 마련되며, 협의회별 준비위원은 아래와 같다. 이종은(교육분과협의회), 노봉옥(양육분과협의회), 김창안, 강진식, 장일형, 조원호, 정영숙(선교분과협의회), 조영률(예배분과협의회), 최종만, 이승숙(봉사분과협의회), 최재경(청소년사역, 전도예배의 기타) 등이다. 행사장준비 및 전체진행은 자원봉사연결팀에서 맡게 된다. 성도들의 많은 참여와 헌신을 기대한다.

여명학교와의 만남의 시간



지난 2월 4일(금) 저녁에 여명학교와 주님의교회가

만나는 오붓한 시간이 있었다. 여명학교에서는 우기섭 교장, 조명숙 교감, 유대열 교목이 참석하였고, 우리 교회에서는 담임목사를 비롯하여 엄주청 장로(공흥사역위원회), 권오승 장로(비전팀) 등 11명이 함께 한 자리였다. 함께 도시락으로 식사하면서 여명학교에 대한 소개를 듣고, 주님의교회가 탈북청소년들을 위해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누었다. 현재 6,100여명의 탈북자(새터민)들이 있고, 그 중 수백명의 청소년들이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심각한 현실을 함께 공감하였으며, 탈북청소년들의 아픔과 필요를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앞으로 여명학교와 긴밀하게 대화하면서, 직접 여명학교를 방문하여 탈북청소년들의 필요를 직접 보고 연구하기로 하였다. 올해에는 우리 교회에 탈북자사역팀이 구성되어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데, 앞으로 여명학교와 좋은 협력사역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크게 기대된다.

제4기 유소년 축구 클럽을 모집합니다

2003년 가을, 주님의교회에서 유소년 축구클럽이 시작되었다. 팀장 이용수집사(2002한일월드컵기술위원장, 현 KBS축구해설위원)를 중심으로 자원봉사 선생님들과 팀닥터 그리고 세종대학체육과 학생들로 구성된 코치선생님들로 구성되어있다.

(3면에서 계속)

성도 여러분 ‘방과 후 학교’에서 청소년을 섬기시다!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방과 후 학교’가 3월 첫째 주 토요일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마다 주님의교회에서 열릴 예정이다. ‘방과 후 학교’에서는 현재 중고등학교에서 중요시하는 중점 과목 이외에도 청소년들이 자신의 다른 기량을 찾아내고, 발휘할 수 있는 드럼, 춤, 미술과 같은 예능과목도 함께 열 계획이다

(2면에서 계속)

소개글

오대원 목사님 소개



미국 본명은 David E. Ross 목사이다. 한국어를 한국 사람보다 잘한다는 목사님은 본래 미국 장로교회가 1961년에 한국에 파송한 선교사였다. 한국에 파송된 뒤 수년간 주로 청년들과 대학생들을 위주로 사역을 해오다가, 매우 지친 상태에서 안식년을 맞아 미국에 귀국하게 되었을 때 어떤 모임을 통

해 새롭게 하나님의 강한 은혜를 체험하였다고 한다. 그 후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초교파적으로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시작하였는데 그것이 오늘날 예수전도단이라고 불리는 단체의 출발이었다. 예수전도단은 1973년 말에 오대원목사님에 의해 설립된 선교단체로 80년대와 90년대 CCC(한국대학생선교회), 조이선교회, IVF와 함께 우리나라의 젊은이 복음화에 기여한 대표적 선교단체로, 청소년과 대학생선교, 제자훈련, 세계선교에 큰 영향을 끼쳐 왔다. 특히 예수전도단은 초창기부터 ‘찬양과 경배’ 부분에 있어서 한국교회에 커다란 영향을 미쳐 왔으며, 수많은 찬양사역자들을 배출하기도 했다. 그 후 예수전도단의 사역이 커가면서 미국 로렌 커닝햄 목사에 의해 설립된 “Youth With A

Mission (YWAM)”이라는 국제적인 선교단체와 협력하게 되었고 1981년에는 한국예수전도단이 국제 YWAM에 연합하여 사역하게 되었다. 오대원목사님은 25년간의 한국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그 후 예수전도단을 다음 사역자들에게 맡기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에 있는 한국 젊은이들(교포 2세)을 대상으로 세계선교를 위해 훈련시키시는 일을 시작하였는데 그것이 ‘Antioch Connection(후에 Antioch Institute로 개칭)이다. 이 단체는 미국 시애틀에 본부가 있다. 오대원목사님은 북한 선교에 대하여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오대원목사님은 사모님과 세 자녀가 있는데, 자녀들은 모두 한국인 아이들을 입양하여 양육하였고 지금은 자녀들이 모두 장성하여 미국에서 살고 있다.

30대 사역 시리즈1

CUP, 주님의교회 30대 사역이 곧 시작됩니다

주님의교회에서는 연초부터 30대 사역을 준비해오고 있다. 교회 안에 있는 1000여 명의 미혼, 기혼의 30대들이 크리스찬 리더로서 교회와 사회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자 시작된 것이다.

사역의 목표

30대의 시기는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시기이다. 일반화 시킬 수는 없지만 직장, 결혼, 가정(육아), 자기

개발 등 실존적인 삶의 문제들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을 사치스러운 것으로 여기게 하거나 좀 더 안정된 후에 누려야 하는 후차적인 것으로 우선순위를 매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청년과 장년의 중간인으로, 경제적, 사회적, 관계적 독립의 시기에 있는 30대들이 필수적으로 겪어야 하는 혼돈과 불안, 시행착오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들이야말로 하나님과의 진실보된 관계의 성

숙으로 나아가야 한다. 30대 사역의 초점은 이러한 삶의 문제들을 직관하게 하며, 믿음 안에서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흩어진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고, 다시금 영적 부흥의 활로를 만드는 것이다. 압박한 사회와 교회의 지도자를 세워가는 것이다.

WHY C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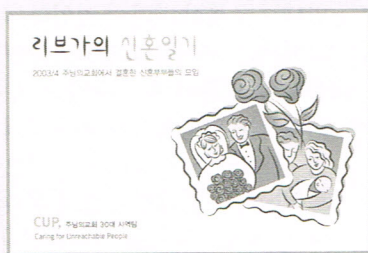
CUP은 주님의 교회 30대 사역의 이름으로 Caring for Unreached People의 앞글자만 따서 만든 것이다. 이 이름은 사람들의 손이 닿지 않은 이들을 찾아가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구체적으로 전하고자 하는 비전을 담고 있다. 또한 이 이름이 가지는 상징적인 이미지인 '컵' (CUP) 역시 예수님의 말씀 속(막9:41)에서 그 의미를 찾아 실천하고자하는 의지를 담고 있다.

Anyone who gives you a cup of water in my name will certainly not lose his reward(Mk 9:41)

이제 곧 구체적인 활동이 제시되고 시작될 것이다. 3월 6일 열리는 [리브가의 신혼일기] 역시 30대 사역의 하나로 비슷한 시기에 결혼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삶과 이야기를 나누는 따뜻한 만남이 될 것이다.

"리브가의 신혼일기" 다가오는 새봄과 함께



30대 사역의 첫 출발지인 "리브가의 신혼일기"는 2003~2004년도 주님의교회에서 결혼한 신혼부부들을 초대한다. 서로 비슷한 환경에 있으면서도, 같은 교회 안에서조차 서로를 아고 지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30대 사역팀, CUP은 그 첫 번째 사역으로 2003~2004년도

주님의교회에서 결혼한 신혼부부들을 초대, 한 자리에 모여 교제를 나누는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 시간을 통해 서로를 알아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소중한 만남을 나누게 될 것이다.

"리브가의 신혼일기"

일시: 2005년 3월 6일 (주일) 오후 5시
장소: 주님의교회 3층 소년부실

• 식사가 준비되고 유아를 동반하여 행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모유)수유를 비롯 아이와 관련된 모든 활동을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 사역팀에서 개별적으로 전화를 하고 있으나 연락처의 변경으로 아직 통화가 되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은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김현령 전도사 017-354-9639)

목요모임

주님의교회가 찬양인도 삼일교회 부목사 황은우목사 말씀전해

2월 17일 목요모임은 매년 한 번 이루어지는 예수전도단 간사총회로 예배인도를 주님의교회에서 맡게 되었다. 윤은성 목사가 찬양을 인도했으며 모인 그리스도인과 함께 열정적으로 찬양했다. 삼일교회 부목사이며 삼일교회부흥보고서라는 책의 저자인 황은우목사가 출애굽기 3장 1~5절로 말씀을 전했다.

행복은 조건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황수관 박사를 만난 에피소드를 통해 그의 얼굴의 웃음은 하나님을 만나고 알기에 나올 수 있음을 깨달았다고. 또 헬렌켈러의 '사흘만 볼 수 있다면'이란 글에서 또한 행복은 많이 가진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모세도 이집트의 왕자였을 때 행복할 수 없었다. 그가 많은 고생을 했지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사명을 감당하느라 힘들었지만 진정한 행복

놓고 꾸준히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라 하나님과의 만남의 기쁨을 못누리게 하기 위해 마귀는 못하게 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좀 더 인내해라 '하나님은 과연 살아 계신가?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라는 의심이 생기고 내가 생각할 그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말자 더 합당한 응답이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지금 말씀에 순종하자. 그래야 죄 가운데 승리할 수 있다. 뉴질랜드에 있는 새들은 반 이상이 날지를 못한다고 한다. 먹이가 널려있어 뛰어들어도 충분하기에 그렇다. 어려운 상황에서 순종하고 성령충만 하지 못하면 선물도 못 받을 뿐 아니라,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해야지 나중에는 더 못하게 된다. 내가 무얼 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데에 해답이 있다.

(1면에 이어서)

성도 여러분 '방과 후 학교'에서 청소년을 섬기시다!

앞으로 이를 위해 땀 흘리게 될 각 교사들은, 이 수업들이 단순히 학원의 연장선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의 대안을 발견하는 현장이 되기를 원하며, 매주 화요일마다 기도회를 가지고 있다.

'방과 후 학교' 부장인 이종은 권사는, 주님의 교회가 청소년사역에 집중하고자하는 교회이지만, 사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스스로 청지기로서 나서야 진정한 청소년사역을 이룰 수 있다고 전하였다.

이를 위해 성도들이 관심을 가지고, 특별히 청년들이 나서서 다음 세대인 후배들을 키우는데 많이 동참을 했으면 좋겠다고 전하였다.

'방과 후 학교'에 관심 있는 성도들을 위해 교회1층의 로비에 설문지가 마련되어 있다. 그리고 궁금한 사항이 있는 성도들은 이종은 권사(011-9638-8719)에게 문의 할 수 있다.

오늘 기도



주님...
세월과 함께
'영도' 성숙하여
주님과 더욱
친밀할 수 있길
원합니다.

은혜의 깃발이 세워진 가정을 소망하며...

가정의 기반위에 하나님 은혜의 깃발을 세우고, 건강한 가정은 더욱더 건강하게 하고 힘든 여정을 가는 가정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하는 가정사역이 2005년부터 시작된다.

부부를 대상으로 건강한 하나님의 가정을 꿈꾸는 5주간의 단기프로그램인 "하나님의 가정 훈련학교"를 지난해 수료한 우리교회 박중순집사(사역팀장) 가정

으로 정희성목사와 함께 이 사역이 출범하게 되었다. 이 사역에 함께 할 가정은 정희성목사와 의논하고 이번주 광고에 나간 '아버지 학교' 및 '하나님의 가정훈련학교' 등 가정을 주제로 다른 교회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에 있는 것이 좋다.

가정사역팀은 올해 함께 사역할 팀을 확대 구성하고 여름 방학을 기점으로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가족캠프

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가정사역을 시작할 예정이다. 현재 9가정이 겨울방학기간에 매주 모여 가정사역 전반에 관한 책임기와 나눔, 그리고 기도으로 이 사역을 준비하고 있다.

오는 26일~27일, 장신대 홍인종교수와 함께 1박 2일 세미나도 계획하고 있다. 주님의교회 각 가정에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고, 하늘의 은혜가 넘치는 축복이 가정사역을 통해 더 확고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지속적으로 확대될 가정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기를 바란다

인격적인 만남을 전제로 출발하는 공흙사역



제3차 공흙 사역 위원회가 문동학 담임목사, 정희성 목사, 엄주청 장로와 각팀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가 2월16일(수요일) 오후4시부터 7시까지 3시간에 걸쳐 4층 소회의실에서 있었다. 담임목사는 구제사역 위원회가 아니고 공흙사역위원회로 이름을 정한 배경을 설명했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도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지만 '어떻게 도울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부터는 전

문적인 지식과 교육으로 사역할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특히 방법론에 대해 강조하면서 첫째, 공흙한 마음을 가지고 둘째,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대해야 하며 셋째,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마음을 읽고 배려 할 줄 알아야 한다고 했다.

앞으로 진행될 사역에 있어서 원칙과 방향을 설정하고 각팀이 주도적으로 정해진 원칙에서 입각해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각 팀장이 진행 및 현황보고를 하고 담임목사는 사역 내용과 진행방향을 각팀별로 아래와 같이 설명했다.

1. 119 사역팀(팀장:서인석 안수집사)

이 사역은 대사회적인 것을 다룬다. 예를들면 폭풍 수해 화재...등의 피해에 관한 것이며 긴급한 출동과 적절한 구호활동이 중요하다. 특히 전문적인 사역을 하고 있는 한국 기독교 연합 봉사단과 협력하고, 매년 예상되는 재해를 예측하여 필수적인 KIT(기본생필품)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도 연구할 부분이다.

2. 결식아동 사역팀(팀장:김선례 권사)

학교와 협력하여 행정적 접근보다는 실제적인 학생들의 필요를 채워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전달하는 방법에 있어서 학생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지 않도록 접근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함을 강조했다.

3. 소년 소녀 가장 사역팀(팀장:고유자 집사)

1:1의 연결이 중요한 사역의 포인트인데, 한 가정이 지속적으로 한 가정을 돕는 체제로 사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잠시 하고 말 사역이 아니라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이 사역을 해야 하며, 참여하는 가정이 교회의 사역방향을 충분히 숙지하고 함께 사역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4. 단전 단수 가정을 위한 사역(팀장:김기성 집사)

특정 지역을 정해서 한전, 및 가스공사와 협력하여 해당 가정을 직접 방문하고 열악한 환경을 바탕으로 보살피며 재정적인 지원과 함께 사랑의 활동을 하는 측면을 이야기 했다.

A. 일용근로자 사역팀(팀장:조경주 집사)

노숙자의 75%가 일용근로자 출신이라는 통계가 있는데, 일단 노숙자로 전락하면 회복이 힘든 상황이다. 이들이 노숙자로 전락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일터를 마련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좋겠으나 현재 일용근로자들을 위한 사역을 하고 있는 권태완목사와 협조를 하면서 이들을 위해 주님의교회가 앞으로 해야 할일들이 무엇인지를 연구하기로 했다.

B. 노숙자 사역팀(팀장:임기택 집사)

* 생존을 도와주는 사역으로 앞으로 마약중독, 알코올중독을 예방 할 수 있는 연구를 해야겠다.

* 현재 서울시에서 권유하고 있는 쉼터를 인계 받아 주님의교회가 운영 관리하는 방법도 조사해서 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C. 탈북자 사역팀(팀장:설영운 집사)

주님의교회가 도시형 탈북청소년 대안학교인 여명학교의 이사교회로 참여하여 매월 방문하고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사역이 무엇인지를 파악한 후 함께 협력하는 사역을 하면서 앞으로 주님의교회가 탈북자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연구하기로 했다.

D. 구제 사역팀(팀장:문완홍 안수집사)

주님의교회가 계속 해 오고 있는 사역으로 더욱 더 적극적으로 독거노인, 뇌사상태인 중환자, 정신지체 장애인, 말기 암환자, 선천성 심장병 환자 돕기를 지속하기로 했다.

앞으로 공흙사역에 동참할 많은 동역자들을 함께 찾고 있다. 관심이 있는 많은 교우들의 기도와 뜨거운 성원을 기대한다.

앙코르 합창단



담임목사의 권면으로 제1남선교회에서 주관하는 앙코르합창단이 조직되어 운영된 지 어언 3년째가 되어간다. 60대 이상 노년들에게 좋은 사역이 될 것이라고 하여 찬양을 좋아하는 남, 여 성도 중 뜻을 함께한 합창단이 결성되어 함께 모여 부담 없이 찬양을 연습하고 발표해왔다. 지휘는 김주봉 집사, 피아노에는 김연경 자매, 주관은 신정웅 집사가 담당한다. 그동안 몇 번 특별한 자리에서 특송도 했는데 많은 성도들의 반응은 은혜가 있었다고 한다. 보다 중요한 것은 참가하는 단원들의 마음에 큰 기쁨이 있었다는 것과 자녀와 손자, 손녀들이 부모들의 합창을 무대에서 직접보고 가슴이 뭉클하기도 하였으며 울기까지 하는 은혜가 있었다는 후문이다.

"앙코르"라는 뜻은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이며 황혼시기가 아니라 이제부터 인생에서 한 번의 사역은 제대로 하며 이세

의 후배들에게 본을 보이며 즐거운 성도 생활에 매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많은 성도들에게 간절히 바라는 것은 마은과 뜻을 같이 하는 60대 이상의 노년 성도들의 합창단 적극적인 참여와 단원들의 건강을 위한 기도를 진심으로 부탁한다 (참여 문의: 신정웅 011-236-0661).

우리는 꿈꾸는 시온청년들

12월 13일 시온찬양대에서 예배 후 연습을 마치고 따로 청년부 모임을 가졌다. 청담동 한 음식점에서 24명의 청년대원들이 참석했다. 이번 모임은 성지연 자매의 송별회를 위해 마련되기도 했다. 이 자리는 서모숙, 최모화 권사의 몇 분의 지원으로 마련되었다. 현재 시온찬양대에서는 청년들의 교제의 활성화를 위해 조현정 자매의 제안으로 예배와 연습시간 사이에 마니또게임을 하고 있다. 각자의 기도제목을 적은 메모지를 내놓고 제비뽑아 마니또를 결정한 뒤 일주일동안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하는 것이다. 또 예배 후 원하는 청년들이 모여 따로 성경공부시간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청년부 회식장소에서는 서로가 일주일동안 외운 성경구절을 확인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는 앞으로 시온청년모임이

활성화와 유익을 위해 여러 가지 토의를 가졌다. 살롬찬양대에 영삼름이 있는 것처럼 중창단을 결성하자는 의견과 한 달이나 두 달에 한 번 모여 책을 정해 모임을 가지자는 것, 또 성경공부의 활성화를 위한 모임의 구체적인 의견등이 제시되었다. 모두들 활발한 모임이 마련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진지하게 토의하고 있었다. 청년모임이 성령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고자 예수와 함께 지어져가도록 시온찬양대는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게 될 것이다.

(1면에 이어서)

제4기 유소년 축구 클럽을 모집합니다



축구클럽에 신청하는 모든 어린이들은

그들을 지어 코치선생님들에게 훈련을 받게 되고 만일에 경우에 대비하여 보험에 의무가입하게 된다.

그동안 매기수마다 100여명의 어린이들이 과정을 마쳤고 해를 거듭할수록 그 실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년2회의 미사리 축구구장 학습과 이영표, 황선홍 등 전현직 축구선수들이 직접 주님의교회를 찾아와 어린 꿈나무들을 격려하기도 했다. 유소년축구클럽의 활동은 믿는 성도들은 물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지역주민들의 참여도 이끌어내어 또 하나의 전도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올해부터는 좀 더 적극적인 교회의 지원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유치부의 신설로 인해 6-7세의 어린이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축구를 좋아하는 모든 어린이들을 유소년 축구클럽에 새롭게 초대한다.

신청기간: 2005년 2월 20일-3월 6일

교육기간: 2005년 3월 13일-6월 26일

(매주 일 오전11시30분-중등부, 1시30분-유치, 아동부)

모집대상: 유치부, 아동부, 중등부

회 비: 5만원

신청서 배부 및 신청 장소: 1층 교회사무소

어와나

구정 연휴 마지막날도 어와나는 즐거운 시간

48명의 단원들이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구정 연휴 마지막 날이 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많은 단원들이 참석하였다. 물론 모든 교사들은 한 분도 빠짐 없이 모두 출석하였다. 게임에 적극적인 단원들도 있었지만 소극적인 단원들도 있다. 소극적인 단원들을 위하여 게임 디렉터가 단체 게임을 준비하여 진행해 모든 단원들이 몹시 기쁨 마음으로 동참하는 모습이였다.

2월 12일 어와나 클럽 불티반에서는 4명의 새로운 단원들의 환영식이 있었다. 두 단원은 교회에 처음 나온 경우여서 더욱 반갑고 감사했다. 교사들은 이 어린 영혼들을 통해서 부모님들도 교회에 나오기를 기도하게 되었다. 모임이 과한 후에는 모든 교사들과 유전도사의 미팅 시간을 늘 갖는다. 이 시간에는 그날의 클럽 진행과정을 돌아보면서 더욱 나은 모습이 되기 위하여 의견을 나눈다. 오늘은 불티 2반의 운영에 대

한 의견이 나왔다. 장소적인 문제와 불티 2반과의 유대관계 그리고 협조와 공유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을 나누었다. 그리고 다음주에는 불티 1반의 부모님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준비하고 있다. 단원들을 어떻게 잘 양육하며 어와나 프로그램을 설명해 드리는 중요한 시간이 될 것이다. 2월 26일은 마지막 토요일이므로 어와나 클럽이 문을 닫는다. 어와나 클럽은 매월 마지막 토요일에는 쉰다.

청년부 매달 첫주 토요일은 세계선교를 위해 기도해

2월 12일 토요일 저녁 7~9시에 3층 초등부실에서 청년부 내 세계선교사역팀 주최로 세계 선교 기도회가 있었다. 작년 10월부터 청년부 세계선교사역팀에서는 매달 첫째 주 토요일 저녁마다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걸 넘어 우리나라와 온 세계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 이번이 다섯 번째 모임으로 이번 달은 구정연휴 관계로 둘째 주 토요일 저녁에 모이게 되었다. 2월 세계선교기도회에는 선교한국 상임

총무로 섬기고 있는 한철호 선교사가 '선교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를 갖고 좋은 말씀을 나누어 주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고 우리와 약속하셨고 이를 또한 우리가 믿기에, 선교란 분명 꾀박을 받는 자리이면서도 우리가 선교를 할 수 밖에 없는 이유이며 더군다나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즐거울 수 밖에 없는 이유를 깨닫게 해주었다. 이 시간의 말씀과 기도는 각자 자신의 문제만을 끌어안고 안주하고 있는 요즘 대부분의 청년들에게 다시금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청년부의 소그룹 성경공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기존 청년1,2부가 통합되어 올해 총 13개 소그룹이 현재 구성되었으며, 매주일 청년부 예배가 끝난 후 소그룹별로 교회 2층 수련실을 비롯한 여러 곳으로 흩어져 말씀을 배운다. 특별히 이번 학기에는 소그룹별로 에베소서 말씀을 배워 나누고, 그 말씀이 각자의 삶에 녹아나기 위해 함께 힘쓸 것이다. 아울러 2005년 청년부의 목표 중의 하나가 소그룹의 정착과 번식인데 말씀 양육을 통해 믿지 않는 영혼들이 생명을 얻게 되고 청년들이 주님의 강한 군사로 훈련되어지길 기도한다.

청년부 겨울수련회 소식



청년부 수련회가 2월 25일 금요일 오후부터 26일 주일 오전까지 경기도 가평에 위치한 그린캠프 유스호스텔에서 열린다. 이번 수련회의 주제는 Young의 Professional을 위한 잃어버린 열정을 회복하라! 이다. 자신의 미래를 준비해야하는 청년의 때에 인생의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열정으로 채워 비전을 향하여 도전하며 미래를 위한 준비에 대해 함께 고민하며 함께 말씀을 듣게 된다. 특별히 이번 집회는 청년부를 섬기는 전 사역자들이 강사로 나선다. 삼성 그룹의 상무이사로서 재직중인 동현수 집사와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는 최상인 집사와 대학 강단에서 가르치는 이희숙 권사의 현장성 있는 다양한 강의와 간증과 윤은성 목사, 이강혁 전도사, 이상호 전도사, 조인수 전도사의 열정 회복을 위한 특별 강의와 집회가 준비되어 있다. 올 한해 도약하는 청년부가 되기 위한 열정 채충전의 시간에 주님의 교회의 모든 Young의 Professional들을 초청한다.

초등부 겨울수련회 리허설 준비로 하나 됨

찍찍, 훅~훅, 짹짹. 어디서 나는 소리일까? 소리를 따라 가본 곳에서는 초등부 전도사와 교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앉아 무엇인가를 열심히 만들고 있었다. 모두들 다가오는 초등부 겨울 수련회(2.19-20)를 위한 리허설 준비를 위해 색테이프를 바닥에 붙이고, 풍선을 불고, 게임에 필요한 비닐 옷을 만드느라 정신이 없었다. 지난 토요일(2/12)은 수련회에 앞서 아이들이 하게 될 게임을 정하고, 미리 시연하여 체해보고, 보완점을 찾는 시간이었다. 게임에 참여한 교사들이 연신 즐거워하는 표정으로 연령에 상관없이 최선을 다해 몸을 아끼지 않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다. 모두 다 아이들이 재미있어할지, 안전에 문제는 없는지, 더 필요한 준비는 없는지 등을 고민하고 연구하느라 시간가는 줄 몰랐다. 너무 열심히 한 나머지 다음 날에는 어깨가 쑤시고, 다리가 아파 몸이 뻣근한 증상이 있었지만, 교사들 간의 하나 됨을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번 겨울 수련회가 더 풍성하고 은혜가 넘칠 것을 기대하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이번 수련회를 통해 아이들이 주안에서 마음껏 뛰

놀고,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 그래서 주안에서의 참 자유를 다른 친구들에게도 자랑하고 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본다.

주님과 세상을 이어줄 파이프를 찾는다

국내2선교 위원회 복지선교부에서는 2005년부터 그동안 송금만 하는 후원방식을 바꾸어 재정적 지원과 함께 손발도 적극 후원하기로 하고 교우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1차적으로 교우 개인적으로 또는 각 구역에서 기존에 후원하던 공부방, 복지기관, 불우 시설들도 대상이며 아울러 신규시설도 소개하여 함께 후원함으로 더 큰 은혜를 나누고자 한다.

또한 3월 20일은 나눔의 물품을 받는 날로 의류 뿐 아니라 어린이용 장난감, 도서, 컴퓨터 등도 필요로 하는 곳이 많으므로 교우들의 적극적 참여를 기대한다.

연락처 부장 박인호 집사 011-710-4420,
총무 김용남 019-9027-8534
홈페이지 <http://cafe.daum.net/kumbayah>

제1남선교회 월례회 결과

지난 1월 30일 오후 1시에 월례회가 있었다. 회의에 참석한 37명은 내용을 알지만 불참한 회원을 위하여 관련 내용을 늦게나마 게재한다. 1부 예배 시간에는 계학용 장로의 기도와 이민호 목사의 말씀 증거가 있었다. 눅 7:11~17에 과부의 아들이 죽었으나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난 것처럼 모든 회원들도 이와 같은 사망감으로 교회 어른들로서 선교사역을 해나가자고 했다. 2부에서는 올해의 사역계획을 검토하고 확정하였다. 특히 사역계획 중 눈에 띄이는 항목은 결식아동 돕기 성가의 밤 개최이다. 전문음악인을 구성하여 찬양하고 연주도 함으로써 성도들도 은혜 받고 성금도 모아 이웃돕기에 전액 나누고자 하는 것에 행사 목적이 있다. 행사는 5월 중에 있을 예정이며 이를 위한 성도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한다.

푸켓(쓰나미 재해복구) 후기

구정연휴에 5박7일의 일정으로 저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홍경환, 이미라)께서 계시는 푸켓에 이승은

(청년부 10기) 자매와 함께 쓰나미 재해복구를 위해 다녀왔습니다. 태국은 이번 쓰나미로 인해서 사망 5374명, 입원 7140명, 실종 3132명 그리고 고아가 644명 발생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그에 따라 푸켓 재해 복구지원본부(홍경환)에서는 효율적인 복구지원을 위해 사고지역인 팜아 카우락에 본부를 운영하며 생필품 전달, 학용품 전달, 의료지원, 탁아소 사역, 재해복구지원 등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한국내 여러 지역의 교회에서 팀을 구성해서, 4일에서 15일의 기간으로 약 14개 팀이 왔다 갔다 저희가 있었던 기간에는 7개 팀에서, 약 120명 정도가 같이 사역을 했습니다. 주로, 약 2000가구가 피해를 입었다는 '남캄'이란 마을에서 집을 부수거나, 정리하는 작업 등을.. 관광객만 800명이 죽었다는 '커카우섬'에서는 주로 집짓기를.. 바다집시족들이 임시거처로 쓰고 있는 '크각'에서는 의료지원(일반, 치과), 탁아소운영 등을.. 그리고 저녁에는 각 교회에서 준비해온 문화공연을 보여주거나 물품 등을 주거나 위로 및 격려하는 방문 등을 '크각'과 남캄 마을의 임시거처인 '어보또방무양'에서 했습니다. 하루빨리 태국뿐만 아니라 이번에 쓰나미로 피해

입은 지역이 여러 통로의 지원으로 정상화 되고 그런 지원들이 힘겨운 일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불교와 귀신이 가득한 그곳이 어찌하면 이런 상황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서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그곳이 하나님께 영광돌리는 땅으로 바뀌어 가게 될 좋은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재해복구지원과 더불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팜아의 면소재지에 앞으로 그 지역을 섬길 '기독교사회봉사센터' (탁아소, 고아원, 교회)를 계획하고 있는데 성도님들의 기도 계속 부탁드립니다.

- 청년부 심명보 형제 기고

